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황인에 대전 덕명중 도덕교사의 거꾸로 교실 모의선거로 국가의 필요성과 역할 배운다



각자가 만든 가상 후보의 공보물을 모둠별로 모아놓고 투표를 통해 모둠별 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모습. 대전 덕명중 제공

도덕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소 추상적이다.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단원도 마찬가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과서 속 문장은 학생들에게 그저 ‘뜯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황인에 대전 덕명중 도덕 교사는 이러한 교과 지식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기자 최초의 장미 대선으로 뜨거워진 ‘선거’를 수업에 접목시켰다. 학생들은 우선 국가, 선거, 사회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후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상의 후보를 정해 모의선거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6차시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의 역할을 바로 아는 한편 미래 유권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인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교과 — 도덕II 학기 — 3학년 1학기 차시 — 6차시 이상

단원	Ⅲ.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주요 핵심성취기준	[도935]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다양한 양상을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936] 국가의 필요성과 국가가 개인의 도덕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도덕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내용	1. 골든서클 사고법으로 국가-선거-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 2.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 고려해 가상의 대선 후보를 선정한 후 모의선거하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골든서클 사고법'을 소개하는 디딤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1차시] 골든서클 사고법으로 떠올려보는 '국가'

1차시는 국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4인 1조가 한 모듬이 되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모듬 활동은 미리 디딤영상으로 보고 온 골든서클 사고법에 따라 진행한다. 골든서클 사고법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Why(왜)-How(어떻게)-What(무엇)'의 순서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즉, △국가가 왜(Why) 필요한지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How) 실현되어야 하는지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What)이 있는지의 순서로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모듬별로 제공된 A3 종이에 마인드맵을 그리듯 차곡차곡 정리하도록 한다. 이른바 '서클'을 완성하는 것. 서클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참고 자료나 방향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의 폭을 넓혀가며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 1차시 종료 후에는 국가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한 디딤영상을 사후영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모둠이 골든서클 사고법을 바탕으로 국가, 선거,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고 있다.

[2차시] 국가를 선거·사회문제와 연결하기

1차시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와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모둠별 토의·토론을 진행한다. 이 때, ‘사회문제는 왜 생길까’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What(무엇)-Why(왜)-How(어떻게)’에 따라 △사회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사회문제는 왜 생겼을까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의 순서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면 △국가 △선거 △사회문제에 관한 활동지 3개가 완성된다. 이를 모아 전지에 붙인 뒤 각각의 활동지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엮어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문장 3~5개 가량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해 정리한 활동지에서 ‘안전’, 선거에 대해 정리한 활동지의 ‘공정’, 사회문제에 대해 정리한 활동지의 ‘위안부’ 등을 엮어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별도의 개념으로 쪼개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문장 만들기가 끝나면 활동지를 모둠별로 돌려 보며 다른 모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줘 잘 쓴 문장이나 참신한 시각이 담긴 문장에 붙이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쓴 문장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3-4차시] 실제 선거 자료로 모의선거 준비하기

이전 차시에서 배운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을 ‘선거’를 통해 체감해 보는 시간이다. 대선을 맞아 각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가져오도록 해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스스로 생각한 국가의 역할·필요성에 근거해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보는 것. 후보 분석을 바탕으로 만약 선거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도 고민해 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거의 기능을 바로 알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

실제 후보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담은 가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본다. 선거공보물을 참고해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담긴 가상 후보의 공보물도 각자 만들어 본다. 정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북한과 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단원을 고려해 북한 관련 정책과 인권 관련 정책을 각각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조건을 준다.



실제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참고해 가상후보의 공보물을 만드는 모습.

[5차시] 모둠별 공천 진행하기

가상 후보 공보물이 완성되면 모둠별로 각 모듬의 대표 후보를 정하도록 한다. 각 모듬이

정당이 되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일종의 ‘공천’을 진행하는 것이다. 각 모듬은 모듬원 각자가 만든 공보물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이 우수한 후보,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를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내세운 가상 후보가 모듬의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강점을 어필하기도 한다.

공천 과정을 통해 대표 후보가 선정되면, 최종 모의선거에서 자신들의 대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듬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과 공약을 다시 한 번 정비한다.

[6차시] 경선 및 모의선거

한 학급 8개 모듬에서 각각 한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학급 내에서 그 중 4명을 걸러내는 1차 경선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각각 스티커를 2개씩 주고, 대표 후보들의 공보물을 돌아보면서 괜찮은 후보에게 붙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위 4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실제 선거 과정을 그대로 따른 모의선거를 진행한다. 투표용지를 만들고, 실제와 똑같이 투표한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종 투표 전 각 후보들을 배출한 모듬에게 유세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학생들은 국가의 역할을 되새겨 투표하고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이 수업은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 평가가 적합한 수업이다. 결과물이나 성과 위주로 평가 기준을 세우기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모듬 활동 과정에서 보인 협력적 태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 시점 또한 특정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준비단계 △중간단계 △마지막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좋다.



평가기준예시

-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국가선거사회문제서클을 완성하였다.
- 선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선거 참여 의지를 보였다.
-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였다.
- 자신만의 후보 선택 기준을 세워 모듬 내 공천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상 후보를 평가한 후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추상적인 도덕수업, 피부로 와 닿게!

Q. 수업 주제가 왜 국가·선거·사회문제인가?

도덕 교과 중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 단원에서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는 단원이 있다.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브레인스토밍 주제로 처음에는 △국가 △선거 △지도자 △사회문제 4개 주제를 계획했다. 국가를 제외한 선거, 지도자, 사회문제도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민하는데 좋은 촉매제가 될 주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학생들이 2차시 동안 4개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버거워했다. 그래서 올해는 지도자를 빼고 △국가 △선거 △사회문제 3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했다. 만약 차시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고, 학생들이 골든서클 사고법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더 추가해 진행할 수도 있다.

Q. 골든서클 사고법을 수업에 접목한 이유는?

골든서클 사고법은 원래 기업의 영업 기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것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What(무엇)-How(어떻게)-Why(왜)’의 일반적인 사고 순서가 아닌 반대 순서, 즉 ‘Why(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역사고 방식’이다.

이런 역사고 방식은 도덕 교과에서 배우는 ‘국가의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국가 안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국가가 왜(Why) 필요할까’를 물어보면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안전이 어떻게(How) 실현되어야 할까’를 물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안전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What)일까’를 물으면 학생들은 119나 경찰서 등을 떠올린다. 이처럼 골든서클 사고법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점점 구체화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Q. 실제 대통령 선거를 수업에 활용한 효과는?

교과서에서 배운 국가의 역할과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해 본 국가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인 선거.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 고자 했다. 일부러 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기간에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선거 관련 내용이 계속 다뤄지다 보니, 학급 내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수업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을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주거나 선거 공보물에 적힌 후보들의 공약을 벤치마킹해 자신의 정책을 내세우는 등 수업 과정에서 현실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사고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모두 우리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Q. 수업 진행 중 아쉬운 점은?

도덕 교과는 수업 차시가 많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6차시 수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교과 교사로부터 양해를 구해 수업 시간을 빌려와야 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수업 과정 중 몇 가지를 생략해야 했다. 이 수업을 도덕 교과에서 진행하려면 차시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차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모의선거 투표 직전에 유세 과정을 포함시켜도 좋다. 학생들이 후보 유세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각 후보(혹은 모둠)가 교실의 코너마다 서 있고, 갤러리(군중)들이 여러 코너를 돌며 3~5분의 정해진 시간동안 이야기를 듣게 하는 '갤러리워크' 방식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Q. 다른 교사들을 위한 제언

이 수업은 국어, 사회, 역사, 음악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음악·미술 교과와 연계해 가상후보의 공보물, 홍보송 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선거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은 사회 교과와도 연계할 수 있다.

다른 교과와 연계해 진행한다면 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도덕 수업은 많아야 일주일에 2차시 정도이기 때문에 6차시 이상 수업을 진행하려면 거의 한 달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교과와 연계해 하루 또는 일주일 안에 연속적으로 모든 과정을 끝내는 것이 수업 효과 면에서도 좋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